장애 인식 개선 위한 특별음반 나온다

보리수아래 '꽃과 별과 시' 제작 녹음…12월 20일 발매

한일 갈등 속 지원금 반납 재능 기부로 어려움 극복 1000장 배포 후원 필요


발달장애 피아니스트 최준 씨의 녹음현장.


작곡을 맡은 장태산 · 김동식 · 지우 씨 연습장면.


음반에 참여한 장애시인들의 모습.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로의 한 작은 녹음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한 분이 들어섰다. 조용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운율이 있는 시적인 가사가 흘러나왔다. 장애인들의 애환을 삶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킨 곡이 나오자 녹음실 바깥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한일관계 경색으로 무산될 뻔한 장애인식 개선 특별음반이 연말에 발매된다. 장애 · 비장애 아티스트들의 마음을 모은 콜라보레이션 음반이어서 더욱 뜻깊다.

장애불자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보리수아래' (대표 최명숙)는 최근 장애시인 11명의 시를 바탕으로 다양한 각계각층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협업 음반 '꽃과 별과 시' 1000개를 제작해 12월 20일 중림종합복지관에서 제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리수아래는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음반에는 장애시인인 김영관, 김소영, 김준엽, 고명숙, 성인제, 이순애, 이경남, 최명숙, 최윤정, 홍현승 등 11명과 발달장애 피아니스트이자 국악인인 최준 음악아티스트. 김동식 작곡가, 진우 작곡가, 가수 박푸른숲, 장태산 음반기획제작자, 한효종 작곡가 등 10여 명이 참가했다.

세부작품으로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지닌 김소영 작사가의 '아기 할머니 품 속에서', 지체장애 1급 장애를 지닌 고명숙 상담가의 '그래도 예뻐', 뇌병변 1급 장애를 극복, 보치아국가대표로도 활동중인 김준엽 시인의 '사랑의 두려움' 등 총 11곡이 실렸다.

특히 이번 앨범은 한일 갈등 관계로 인한 영향을 극복한 결과물이어서 눈길을 끈다. 당초 앨범은 일본 장애시인과 아시아 장애시인들의 공동시집 제작과 동시에 진행하던 사업이었다. 사회적 영향으로 당초 공모사업 형태로 받기로 했던 지원금 등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며 음반과 시집 발매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장애시인 등 참가자들부터 함께 만드는 음반으로 정성을 모았다. 장애시인들은 저마다 작곡에 대한 재능기부와 함께 오히려 보시금을 전달했다. 특히 음반 기획과 작곡, 노래 등을 담당한 진우 씨의 경우 이번 음반에는 작곡가 섭외를 비롯해 녹음과 음반 디자인 등 전반적인 부분을 재능기부했다. 갖은 어려움에도 11월 28일 현재 작곡과 편곡은 끝난 상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지원금 반납으로 사실 음반 발매 자체가 큰 위기였지만 음반 참여자분들이 오히려 조금씩 정성을 모아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다만 시집발간보다 음반 발표를 먼저 하게 됐다. 사업진행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어 발매한 음반 배포 등에 뜻있는 후원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우리 사회의 도반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며 "일본 장애시인들과의 사업 또한 성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현재 조계사 주지로 있는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결성된 '보리수아래'는 장애인들의 예술창작과 발표활동,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시아장애인 교류사업과 장애인불자를 위한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매년 4월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 아티스트들이 함께 하는 공연을 열고 있으며 장애시인들의 시를 기반으로 한 음반과 공동시집, 미얀마와 베트남 시인들과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을 출간하고 있다. 후원문의 (02)959-2611

올해의 합창단은 '봉은사 합창단'

2019 제8회 불교합창페스티벌

조계종 문화부과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2019불교합창페스티벌이 11월 25일 더케이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1차 심사를 거친 8개 합창단이 참여했으며 합창단들은 각각 2곡씩의 참가곡을 불렀다. 이중 1곡은 2019년 제6회 신작찬불가 공모전에서 선정된 곡이다.

심사를 거쳐 그랑프리 수상 영광은 봉은사 청년합창단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7개 합창단인 인천불교회관 승만합창단, 조계사 청년회 합창단,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천수천안 합창단,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합창단, 서울 상도선원 간다르바 합창단, 국방부 원광사 바라밀 합창단, 국제선센터 합창단에게는 1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불교음악원 측은 "불교합창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연과 찬불가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환희와 감동으로 신심이 배가되는 법회와 사찰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환경 새 화두 제시한 작품"

11월 26일 '그린부디즘 연작', 불교언론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11월 26일 시상식 이후 수상자들이 환한 미소를 띄며 불교미디어 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본지가 진행한 연중기획 '必환경 시대&Green Buddhism' · '키워드로 읽는 Green Buddhism'이 조계종이 11월 26일 개최한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은 11월 26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서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현대불교신문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에게 '必환경 시대&Green Buddhism' · '키워드로 읽는 Green Buddhism'(이하 그린부디즘 연작)기획에 대한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500여 불자들이 함께해 수상을 축하했다.

대표로 상을 수상한 신성민 기자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시대를 맞아 불교환경 운동에 대한 소중함을 되살리고, 다시금 불교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기획을 진행했다. 팀으로서 함께 노력한 결과로 더욱 보람된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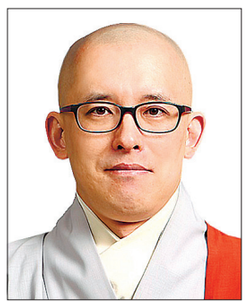
이번에 상을 수상한 '그린부디즘 연작'은 미세먼지, 라돈 사태 등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가 발발한 시점에서 불교 환경운동사를 되짚고 '必환경(Green Survival)'이란 화두를 제시한 연속 기획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에 BTN 다큐드라마 '사명대사'가, 방송부문 TV최우수상에는 KBS스페셜 '세계유산 대흥사-인드라망의 숲에서',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에 BBS특별기획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 등이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문광 스님, 제1회 탄허학술상 수상

11월 29일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시상식

탄허학 개창 공로 높게 평가

"〈탄허선사강설전집〉 편찬해 탄허 사상 세계에 알리겠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암 · 탄허학술상 첫 수상자로 조계종 교육아사리이자 동국대 외래교수인 문광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제1회 탄허학술상 수상자로 문광 스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암 · 탄허학술상은 한국불교학회가 주관하고 금강선원 · 월정사 · 탄허불교문화재단 · 한암문도회 후원으로 이뤄지며, 홀수 해에는 탄허학술상을 짝수 해에는 한암학술상을 시상한다.

선정 이유에 대해 한국불교학회는 "문광 스님은 탄허 스님에 대한 연구로 최초의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탄허학' 이라는 독립된 학문을 개창했다"면서 "선교겸수의 적극적 실천으로 탄허 스님의 원융과 화해의 사상을 우리사회에 널리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탄허학술상 첫 수상자로 선정된 문광 스님은 2001년 해인사 원당암으로 출가했으며, 2002년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8년 성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문광 스님은 봉암사 태고선원, 해운정사 금모선원 등에서 수행정진했다.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문광 스님은 학문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출가 전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출가 후에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고,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스님은 2012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중국고전문학 연구로 석사학위를, 2018년 8월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탄허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특히 탄허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은 처음이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학승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문광 스님은 지리산 칠불사에서 대강백 통광 스님으로부터 경허-한암-탄허-통광으로 이어지는 전통강맥을 전수받기도 했다.

문광 스님은 "동양학을 공부하다 출가를 했는데 탄허 스님의 강의 CD를 듣고 너무 놀랐다. 스님이 펼쳐놓은 사상이 광대해 전문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탄허 스님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탄허 스님 연구로 어른 스님의 이름이 들어간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우담 선생이 모아놓은 자료들을 건네 받아 〈탄허선사강설전집〉 편찬을 추진 중"이라며 "탄허 스님의 사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탄허학술상 시상식은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불교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인 문광 스님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신성민 기자

〈문광 스님 발표논문 요약 A7면〉

"김진표 총리지명 반대"

종교투명성센터 11월 28일 성명

종교투명성센터(상임대표 곽성근)가 개신교 편향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진표 국회의원의 차기총리 후보 지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11월 28일 성명을 통해 "김진표 의원은 지금의 종교인과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표창장까지 받은 바 있다"며 "차기 국무총리지명에 대한 기대감을 표할 상황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낙선대상에 될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어 "올바르게 돌이킨다면 국민들은 김진표 의원의 선한 결정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드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종교투명성센터는 △2018년 종교투명성 센터가 제기한 종교인과세법 개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내놓을 것 △종교인과세법 개악과정서의 행위를 회개할 것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세금부담을 지도록하는 작업을 여당 차원서 착수할 것 등을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